

「대전-세종-충북 광역철도」 청주 도심 통과로 예타 신청한다

- 2023년 6월 7일, 청주시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개최된 「평택-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,
 - “대선과정에서 약속드린 대전-세종-충북 광역철도가 충청도민과 청주시민의 염원대로 청주 도심을 통과하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”이라며,
 - “청주공항에서 청주 도심과 오송역을 거쳐 세종, 대전까지 새로운 교통축이 만들어지면 지하철로 더욱 편리하게 공항과 고속철을 이용할 수 있다”고 강조하였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의 하나인 「대전-세종-충북 광역철도」는 지역의 주요 거점을 모두 연결하고, 대전·세종 주민들의 수도권 접근성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,
 - 특히, 충청도와 청주 주민들도 편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청도, 청주시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오랜 논의 끝에 청주 도심을 통과하도록 광역철도 노선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.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청주 도심 통과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및 충북, 청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한 공”이라고 돌리며,
 - “대전-세종-충북 광역철도가 명실상부한 충청권 지역발전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, 즉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는 등 최대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※ 6.8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예타신청 심의의결

담당 부서	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	책임자	과 장	정수호 (044-201-3988)
		담당자	사무관	이현진 (044-201-4133)
	국가철도공단 사업기획처	책임자	처 장	김현성 (042-607-3901)
		담당자	부 장	유홍균 (044-607-3792)